

2023. 11. 28.(화) 석간용

이 보도 자료는 2023년 11월 28일 오전 06:00부터 보도할 수 있습니다.



보도자료

담당부서 : 물순환안전국 물재생계획과

물재생계획과장

함 명 수

02-2133-3780

하수정비팀장

안 준 회

02-2133-3810

사진없음 사진있음 매수 : 3매

담 당 자

유 제 혁

02-2133-3795

서울시, 지반침하 발생지역 노후 하수관로 전수조사 및 선제적 정비

- 지난 9년간 지반침하(209건) 중 하수도 관련 침하는 107건(51.2%)으로 다수 차지
- 최근 3년간 하수도 원인 침하지점 주변 하수관로(27개 지역, 530만 m^2) 전수조사
- 내구연한(30년)이 도래되는 하수관로에 대한 연차별 조사 및 정비 시행

- 서울시는 앞으로 발생하는 모든 지반침하 발생지역의 하수관로에 대해 선제적 전수조사를 시행한다. 이를 통해 하수관로 손상 여부를 확인하고 정비함으로써 추가적인 지반침하를 방지할 계획이다.
- 또한, 최근 3년간 하수도 원인 지반침하 발생지점 주변 27개 지역 530만 m^2 의 하수관로 135 km 에 대해 올해 12월부터 신속한 전수조사를 통해 긴급정비를 시행한다.
- 최근까지 하수도가 원인이 되는 지반침하 사고가 빈번히 발생하면서 지하 안전에 대한 시민들의 우려가 커지고 있다. 지난 9년간 지반침하(209건) 중 하수도 관련 침하는 107건(51.2%)으로 침하 사고의 다수를 차지했다.

구 분	계	'15년	'16년	'17년	'18년	'19년	'20년	'21년	'22년	'23.10
지반침하	209	33	57	23	17	13	15	11	20	20
하수도	107	17	32	9	10	5	6	8	11	9

최근 노후 하수관로로 인한 지반침하 사례



성북구 성북동



중구 남대문로5가



송파구 송파동

- 하수도 관련 지반침하는 대부분 시설물 노후화가 원인으로 지반침하 위험지역 및 30년 이상 노후 하수관에 대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서울시는 지반침하 위험지역 노후 하수관에 대해 선제 조사 및 정비를 통해 안전한 서울을 조성한다는 계획이다.

노후 하수관로 조사



- 서울시는 '15~'21년까지 시행한 도로함몰 예방사업 완료 이후 새로이 내구연한(30년)이 도래되는 노후 하수관에 대해서도 대책을 마련했다. 연차별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지반침하를 유발하는 노후 관로를 선제적으로 교체하는 등, 서울 시민의 안전 확보를 위해 노력을 아끼지 않을 계획이다.

- '15~'19년까지 노후 하수관로에 대한 전수조사를 시행, 2017년 기준 노후 하수관로 5,743km 중 재개발 예정지 등 2,935km를 제외한 2,808km를 조사하고, 긴급 정비가 필요한 312km에 대해 '21.12월까지 정비를 완료했다.
- 도로함몰 예방사업 완료 이후 새로이 내구연한(30년)이 도래되는 노후 하수관로가 매년 약 150km에 달해, 노후 하수관에 의한 지반침하 예방을 위해선 앞으로도 지속적인 조사 및 정비가 필요하다.

<내구연한 도래되는 연차별 하수도 연장>

도래시점 (매설연도)	계	사업 완료	~ '24년 (~ '94년)	'25년 ('95년)	'26년 ('96년)	'27년 ('97년)	'28년 ('98년)	'29년 ('99년)	'30년 ('00년)	'31년~ ('01년~)
연장(km)	10,827	5,743	400	150	149	145	75	86	122	3,957

- **임창수 서울시 물순환안전국장은 “최근 지속적·반복적으로 발생하는 지반침하로 인해 시민의 불안감이 커지고 지하 안전에 대한 요구가 높아졌다”라며 “지반침하 지역과 내구연한이 도래되는 노후 하수관로에 대한 선제적이고 과학적인 조사와 정비를 시행하여, 안전한 서울시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